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관계부처,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였음

(11.5일자 뉴스핌 「산업부, 중국정부 요소 수출금지 알고도 ‘골든 타임’ 놓쳤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가 2주 허비한 뒤 뒷북 대책회의를 가졌고, 문대통령 유럽 순방 준비하다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느장대응 했다고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산업부가 동 사태를 2주간 방치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
 -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,
 - 그 직후부터, 현지 공관에 세부 현황 파악 요청, 업계 간담회 및 관계부처 회의 개최, 중측에 수출 재개 협조 요청 등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기에 진행함
 - * 현지 공관에 세부동향 파악 요청(10.21), 요소 사용업체 간담회(10.27), 통상교섭본부장-주한중국대사 면담(10.29), 요소 수급대응 관계부처 회의(11.2), 국내 요소수급 수입업계 간담회(11.4) 등

- 요소 수급 대응과 정상 유럽 순방 준비와는 무관한 사항임

* 양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는 별개의 부서임

※ 문의: 박정미 동북아통상과장(044-203-5690) / 이창우 사무관(5695)
이선혜 화학산업팀장(044-203-4930) / 이라노 사무관(4934)